

# 인생은 66세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너무 일찍부터  
묵혀 버리려 들고 그로서 지쳐버리게 된다”

“코빈에서 세계로” 켄터키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남긴 샌더스 대령의 이야기

〈편 집 부〉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외식산업 발전의 선두 주자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으며 이제 튀김 닭고기의 대명사가 된 KFC는 어떤 회사인가를 몇 회에 걸쳐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부로일러산업 및 외식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50년전 켄터키주의 지저분한 작은 마을 코빈에서는 당장 망할 것 같은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가스 주유소 앞에 붙어 있는 작은 가게에 갖춘 것이라고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여섯개가 고작이었고 부엌도 주유소 뒤쪽의 살림방 안에 있었다.

40세의 할랜드·샌더즈는 주유소 주인이자 주방장 그리고 회계까지 도맡고 있었다. 물론 세계적인 음식체인망은 꿈도 안 꾸고 있었고, 대령도 아니었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다. 그가 신경쓰던 것이라고는 단지 자기 처와 세 아이를 잘 먹여 살릴만큼 넉넉해지는 것 뿐이었다.

샌더스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다가 손님이 오면 그 음식을 내다 팔고는 다시 식사 준비를 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곧바로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켄터키 남동부 애팔래치아 산기슭에 자리잡은 코빈의 경기는 별볼 일이 없었다. 미국은 사상최악의 불경기에 처해 있었고 前年度 후반기에는 주식시장도 무너져버린 모두가 어려운 판국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근근히 모아 둔 예금을 모두 잡아먹은 채 은행도 문을 닫아 버렸다. 농부들은 저당금을 못 갚아 토지를 잃어 버리는 일이 속출했다. 공장이나 회사들은 도산하고 실업율은 25%에 달하였다. 전직관리들은 길거리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무료식당이 들어섰으며 빵배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샌더스의 주유소도 농부들에게 외상으로 준 가스값을 못받아 그해 초에 망해 버렸다. 지난달 주유소 임대료를 갚으려고 원치도 팔아치웠다. 잘 때 나가던 샌더스의 장사가 1929년의 대공황으로 인해 다른 수천명의 처지와 같이 망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또한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바로 몇 년전에도 아세칠렌조명 장사를 시작했다가 벨코라는 자가 훨씬 좋은 전기조명시설을 갖고 덤벼드는 바람에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날려버렸었다. 그후 그는 미쉬린타이어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제법 잘 지냈으나 회사가 뉴저지의 공장문을 닫는 바람에 다시 할일 없이 지

내게 되었다.

샌더스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6살 때 돌아가셨고, 그는 어린동생들을 돌봐야 하게 되었다.

그의 새아버지는 샌더스가 12살때 말그대로 그를 차내버리고 말았다. 이것으로 그는 학교와 마지막이 되었고 험난한 인생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일을 사랑하며, 나이는 어려도 어른 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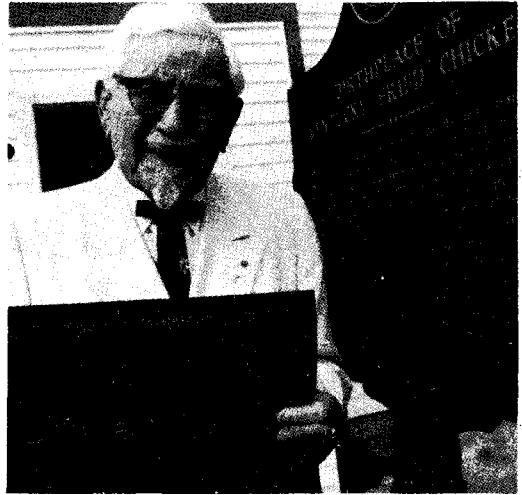
샌더스는 농부생활을 거쳐 인디애나주의 뉴알바니에서 전차차장으로 일하다가 거기서 한 모병관이 이 16세의 소년을 피어 군에 지원하게 하였다. 일어나지도 않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쿠바로 수송되었던 샌더스 사병은 향수병에 걸려 일찍 제대하게 되었다. 그는 알라배마주의 헌츠빌로 가서 숙부, 숙모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샌더스는 철도공사장에서 대장장이의 조수로 일하다가, 엔진의 재를 닦아내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화부(火夫) 한사람이 그만두자 그가 그 자리를 대신하다가 고정적인 화부로 일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와 헤어지자 이 십대의 소년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므로 늘어난 수입은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갔다. 스무살도 안 되어 결혼은 했으나, 첫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철도경역을 둘러싼 분쟁의 와중에서 그는 직업을 잃고 말았다.

직업을 몇번 바꾸고 나서야 샌더스로 자신이 남밭에서 일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이레인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불같은 성질과 자기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다는 욕망은 그로 하여금 다른 일에서 손을 떼게 하였다.

야심적이고 성실하긴 했으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로 통신강좌를 수강하였다. 화부로 일할 때 그는 증기기관에 관한 라살레통신강좌를 수강하였다. 그후 1920년



△ 코넬H 샌더스 회장이 처음 시작했던 코빈의 점포사진을 들고 있다

대에 명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던 클래런스·대로우와 같은 명변호사 되고자, 샌더스는 라살레공개강의를 통해 법률공부에 탐닉하였다.

치안재판소에서 2년간 근무했으나, 관사와의 싸움으로 샌더스는 이일에도 중지부를 찍고 말았다.

다시 실업자가 되어 뉴알바니로 돌아온 그는 철도를 바꾸고, 철로에 못을 박는 保線手로 일했다. 낮에는 철로에서 등이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밤에는 달빛을 맞으며 화차에서 석탄을 내렸다. 하역할 석탄이 없을 때면 화장실을 청소했다. 샌더스에게는 너무 힘들다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친척 한사람이 보험업무에 관해 귀뜸을 해 주었다. 옷을 한벌 빌려입고 지원하여 보험외무사원으로 취직을 하였다. 꼭 두새벽부터 밤에 가정집의 불이 꺼질 때까지 길바닥이 울리도록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보험을 팔았다. 수개월만에 그는 보험판매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언변이 더욱 세련된(보험외판도 커미션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만 두었고) 샌더스는 이제 의젓한 사업가가 될 소지가 있었다. 뉴

알바니와 루이스빌 사이를 오가며 여객과 차량을 수송하는 여객선 회사 주식매매와 인디애나주에서 상업회의소 서기를 거치며 모은 돈을 샌더스는 그 빌어먹을 아세틸렌 장사에 쏟아 넣어 몽땅 날리고 말았다.

그의 경력을 통털어 힘든 일에 대한 놀라운 힘을 제외하면 샌더스에게는 음식장사를 할 것 같은 점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미국이 불경기로 신음할 때 코빈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다.

20대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도 샌더스는 가난했다. 돈있는 자는 밀매업자들 뿐이었다. 코빈은 “지옥의 반에이커”로 불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과장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비록 시대는 그랬어도, 샌더스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잘 돼 나갔다. 서는 차마다 앞유리를 닦고 라지에이타를 채워 주었으며, 단순히 질을 물어보는 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가능하기만 하면 차바닥을 쓸고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 넣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드문 것이었다. 샌더스를 찾는 손님은 계속 늘



△ 주유소 주인이며 주방장이며 카운터까지 일인 4역 때의 코넬 샌더스

어났다.

고객들은 대부분 디트로이트, 콜럼버스, 신시내티와 차타누가, 아틀란타 및 마이애미를 오가는 여행자와 사업가들이었다.

샌더스는 항상 청결에 신경을 썼다. 길거리의 식당차와 지저분한 스푼에 지친 여행자들에게 샌더스의 깨끗한 식당은 큰 즐거움일 수 밖에 없었다. 샌더스는 오로지 고객의 즐거움에 신경을 썼다.

문만 열면 다소라도 수입이 오를 것이고 그도 그 수입이 간절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바닥에 깔 리놀륨용단이 마련될 때까지 문을 안 열었다. 돈이 없던 샌더스는 철물 점주인을 설득, 16\$짜리 용단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여행자들은 샌더스의 음식을 좋아했다. 샌더스의 요리솜씨는 샴바느질을 하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어린 할랜드는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동안 요리를 하였었다.

아울러 어떤 절기에는 어떤 고기가 그리고 어떤 양념이 알맞는가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게다가 샌더스는 자신이 요리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으니 이야말로 후일에 세상을 살찌우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하루저녁에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성공은 조금씩 이루어졌다.

샌더스는 일단 식당으로 사용하기에 알맞는 점포가 달린 더 큰 주유소로 이사를 하였다. 비록 느리기는 해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음식이 훌륭하다는 정평은 여행자들을 매료시켜 25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샌더스의 주유소에 들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시하게 되었다.

샌더스의 명성은 떨쳐지기 시작했다. 요리를 통한 주(州)에의 공로로 루비·라폰 주지사에게서 표창을 받을 때 샌더스는 ‘켄터키 대령’이라는 칭호도 동시에 받았다. 1939년에는 그의 가게가 던컨·하인즈의 ‘훌륭한 식사를 (ADVENTURES IN GOOD EATING)’ 이



△ 샌더스영감이 직접 가맹점 종업원을 KFC 연수원에서 시범을 보이며 가르치고 있다

라는 책에 소개되었다.

그후 10년동안 샌더스는 실험을 거듭하여 닭고기의 빛깔을 개선하고 향미를 돌구기 위해 기본양념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갔다.

수년간 양념을 다듬고 개선하여 최고의 상태에 다다랐으나 아직도 요리시간에 문제가 있었다. 여행자들은 항상 바빴는데 닭고기를 튀기는 데는 30분 이상이 걸렸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1939년에 출현한 압력솥이었다. 켄터키 대령은 이 솥을 닭고기 요리에 사용할 궁리를 했다. 압력솥 발명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절초풍 할 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가스배급제가 실시되어 샌더스의 장사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종전(終戰)과 함께 샌더스의 가게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모텔을 신축하고 가게도 142석으로 늘렸다. 한참 잘되어 나갔으나 연방정부가 코빈을 지나는 州間고속도로를 건설하자 샌더스는 부채에 쫓겨 그의 가게를 경매에 붙여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대령의 나이는 66세에 달했으나 그는 은퇴하여 매달 105불씩 나오는 사회보험금이 나 타먹으며 지내기에는 자신이 너무 젊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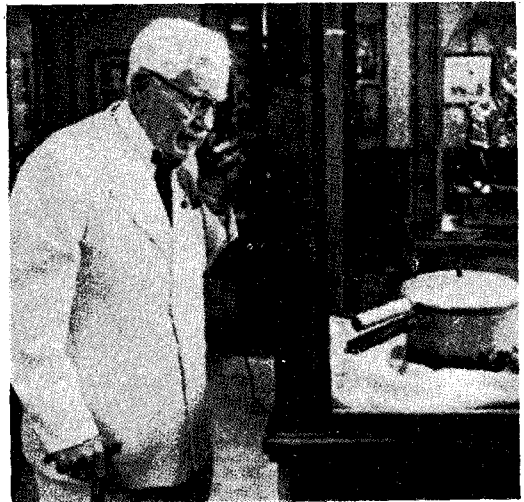
그는 일단 일부에서 만이라도 자신의 치킨 양념을 확대보급기로 했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등지를 돌아다니며 식당주인들을 만나 종업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요리시범을 보였다.

식당주인이 동의하여 자기네 메뉴에 켄터키 치킨을 추가하는 경우 KFC (Kentucky Fried Chicken)하나마다 몇센트씩 샌더스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판매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대령은 이 수입이 연간 12,000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5년동안 설정된 판매권은 4,000개에 달하였고, 4년후에는 판매가 6,000개 이상으로 불어났는데 이때에는 최초의 해외점으로 영국까지도 진출해 있었다. 서류뭉치는 쌓여 갔으나 대령은 오랜 친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1964년의 일인데, 루이스빌의 젊은 법률가인 29세의 존·브라운과 60세의 내슈빌 은행가인 잭·매세이가 200만불에 그의 사업을 인수하고 대령에게는 평생 직업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대령은 팔았다.

편히 앉아서 쉴 수도 있었지만 대령은 그렇



△ 처음 닭을 튀기던 압력솥이 현 KFC 본부 전시실에 진열되어 있다

게 할 수는 없었다. 그때신 KFC 를 선전하며 돌아다녔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광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대령은 자연스럽게 상업적인 면에서 이 조직의 대표자가 되었다. 1971년도에는 휴브라인 회사가 KFC 회사를 2억 7천 5백만불에 인수하였다. 그동안 KFC 의 판로는 2배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매상고는 한해 2억불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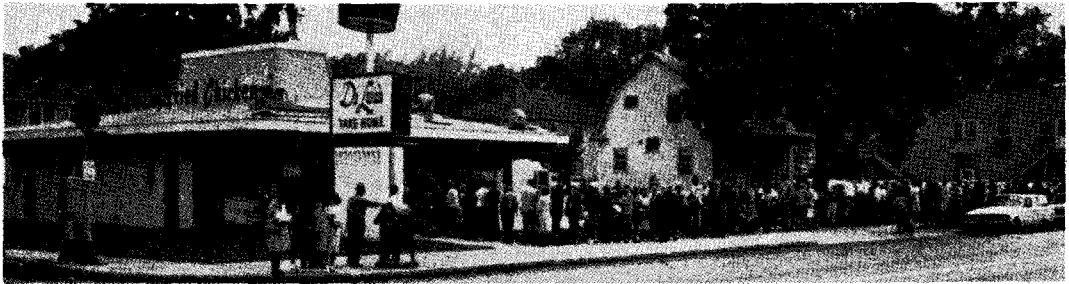
테이블 하나에서 이만큼 커지기까지는 별고 먼 길이였다. 그러나 대령은 여전히 자기 사업을 위해 분투노력하고 있다. 그의 사전

에는 은퇴나 휴가라는 말이 없다. 게다가 KFC 점포를 방문하거나 사업을 돕는 것 외에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대령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너무 일찍부터 묵혀버리고 들고 그로서 지쳐 버리게 된다. 나로서는 그건 끔찍스러운 일이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50년간 격동의 세월을 지내왔어도 대령은 지난날이나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앞날을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이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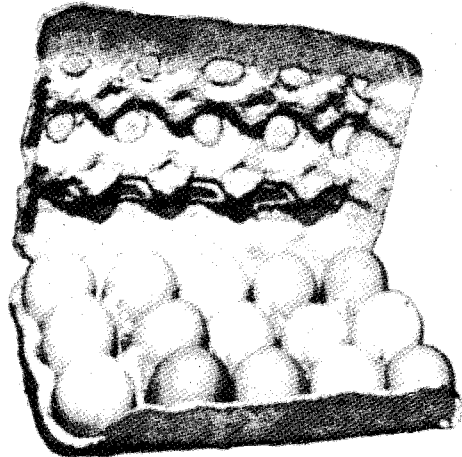
오늘날 미국뿐 아니라 세계 44 국에서 샌더스영감의 얼굴과 모형이 있는 KFC 가맹점을 볼 수 있다

## 계란보관은 종이난좌로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

야간 : 1342 (성남) 3-6239